

보 스텐

이마고 데이

창 **1:27**, 시 **139:13-16**, 렘 **1:4-5**, 엡 **2:10**, 요한복음 **4:4-14**

우리 모두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연극 어디에 있나요?

영성형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사람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영적 형성은 그분의 형상(그분이 누구신지)과 그분의 숨씨(그분께서 창조하신 것)가 인간의 삶에 완벽하게 결합되는 곳입니다.

(슬라이드 1)

영적 형성은 그분의 형상(그분이 누구이신지)과 그분의 숨씨(그분께서 창조하신 것)가 인간의 삶에 완벽하게 결합될 때 일어납니다.

(슬라이드 2)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27**

(슬라이드 3)

당신은 나의 가장 깊은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내가 두렵고 놀랍게 만들어졌으니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작품은 훌륭합니다.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 만들어졌을 때, 땅 깊은 곳에 짜여졌을 때, 내 틀이 당신께 숨겨지지 않았습니
다.

당신의 눈은 나의 아직 형성되지 않은 몸을 보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13-16**

(슬라이드 4)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노라.
내가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예레미야 **1:4-5**

(슬라이드 5)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10**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당신 존재의 중심에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조각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당신 안에 창조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경전에서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체보다 먼저 존재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다르다고 언급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독특하게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의 일부입니다.

영적 양성은 인류의 균질화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본 설정으로 삼는 것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비극적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주를 가득 채운 거대한 하나님의 형상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알렉스, 케이시, 제이미의 형상으로 자신을 개조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인생의 대부분을 불행하고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알렉스나 케이시, 제이미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그들의 이미지대로 만들어질 운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Dr. Seuss는 말합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것은 사실보다 더 진실이며, 당신보다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 전체 교회가 설득력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이미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가장 아름답거나 가장 재능이 있거나 독특한 사람의 이미지로 창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훌륭하고 독특하며 귀중한 걸작을 작업하는 화가, 그리고 뒤로 물러서면 그가 퍼즐 조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파이퍼와 퍼즐. 당신 없이는 퍼즐이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조각은 성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엄청난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 숨을 쉬는 순간부터 그 작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면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조각을 덮고 가리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으며, 성령님은 그것을 표면으로 가져오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누구로 창조되었는지. 성상은 당신에게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퍼즐 조각은 당신이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지닌 육체로 둘러싸여 있고, 당신의 몸은 외부 환경의 전체 세계로 둘러싸여 있으며, 온 세상은 권세와 정사의 보이지 않는 왕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상은 완전히 모호해질 정도로 분노, 분노, 정욕, 불안, 상처, 어둠 아래 묻혀 살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에 질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왕국의 잔해 속에 묻혀 있을 수도 있지만, 발굴될 수도 있습니다. 발굴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성상에 관해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의 기도와 목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말입니다. 보에서는 천국과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비극적인 왜곡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 '태양 아래' 갇혀 있는 동안보다 더 아름답고 더 생생합니다.

- 그것은 전적으로 좋고 진실하며 아름답습니다. 신처럼. (참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숨씨를 반영하게 만드는 필수 요소입니다. 중고품 가게에서 쇼핑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녀는 복원하고 다시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의 가치를 인식합니다. 그녀 안에 있는 성충이 죽는 거죠. Carol Anne은 단어와 책을 좋아합니다. 스티브 미첼은 예술과 신학을 좋아합니다. Casey는 음악을 좋아하며 완벽한 선물을 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 스티브와 “천국의 골프”. 나 = 천국의 도서관.) 저는 CS Lewis가 천국에서 최고의 책을 쓰고 있고 요리사가 최고의 식사를 요리하고 와인 양조업자가 최고의 와인을 재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최고의 연극과 오페라, 발레는 천국에 있습니다. (믿기가 어렵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에서 연약한 인간의 손으로 창조된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 중 더 나은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가정하는 것은 얼마나 오만한 일입니까.) 천국은 인류가 항상 채워야 할 자리, 항상 창조해야 했던 아름다움, 항상 해야 했던 일을 찾는 것입니다. 천국은 평화롭게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가장 명확하고, 진실되고, 가장 아름다운 정체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함께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우리의 유한한 타임라인과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환할 때 우리 몸은 변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성상 (imago dei)은 살아나서 중심 무대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이 말했듯이, “씩지 아니할 씨”가 충만하고 영원하고 생명력 있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덮고 있는 모든 것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의 형상 과 그 안에 내재된 아름다움을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행복)

이제 그는 사마리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그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밭에서 가까운 곳이라 **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라 정오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그는 사마리아를 통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방해가되지 않았습니다.

7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왔을 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겠느냐?” 요한복음 **4:4-7**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갈 필요가 없었고 여자도 그 우물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정오에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여자들이 물을 길 때가 아닙니까? 그녀는 왜 정오에 갔나요? 아마도 “그때는 여자가 물을 길 때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늘진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화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녀를 먼저 보신 다음, 그녀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부르십니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당신은 유대인이예요.” 여자가 말했다.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교제하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4:9**

이것은 여성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방식을 처음으로 엿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상(imago dei)을 덮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녀의 민족, 혈통, 성별, 그리고 곧 우리는 그녀의 실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조금도 단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인종차별과 여성혐오가 만연한 사회에 빠져 있지만, 그는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여성혐오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생수를 두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네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으리라.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말한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13-14

세상을 위한 생명과 치유를 뿜어낼 수 있는 우물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진실로 적극적으로 인식할 때, 직위 변경이나 이동으로 인해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 또는 정부의 전환. 나는 나의 실패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레스 사이즈나 스키니진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등 항상 변하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진정한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의 의견은 우리에게 대해 동일한 힘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이 보아야 할 그분의 형상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면서 우리는 직무기술서나 직함, 이력서가 아닌 오직 우리만이 차지할 수 있는 퍼즐 속 공간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 커피숍과 HOA 회의,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가장 실망스러운 적들과의 대화에서 그런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퍼즐 조각은 당신이 찾아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당신의 가장 훌륭하고 흥미로운 삶이 그 조각과 함께 펼쳐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할 것? 보려면? 만들다? 경험하려면?

-당신은 무엇을 싫어합니까?

나는 ALS를 싫어하고 내 친구는 인신매매를 싫어합니다. 사실 우리 둘 다 그 둘 다 싫어하는데 하나는 내 마음에, 하나는 그녀 마음에 박혀 있어요. 그녀는 ALS와 싸우기 위해 내 에너지를 쏟은 나를 원망하지 않고 격려해 줍니다. 나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의 모금 행사에 돈을 주고 그녀는 나에게 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짓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워터본 질병 때문에 아름다운 삶이 단축되는 것을 싫어해야 합니다.

-당신을 가장 웃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울게 만드나요?

-행복한 눈물? -슬픈 눈물? -“이게 무슨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눈물?

당신이 최선을 다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고, 표현하고, 실천하시나요?

-당신의 자녀

-너의 배우자

-당신의 친구/가족은요?

-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¹⁸ 그러므로 그 수건이 벗겨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영광을 보고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신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될 때 우리를 점점 더 그분과 같이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